



# 정교회주보

제2501호

2024.12.01

한국 정교회 대구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02)362-6371 | Fax.(02)365-2698 | orthodoxkorea.org



<세계의 정교회 수도원> 데브레 다모 수도원(사진)은 에티오피아 북부의 고립된 산에 자리 잡고 있다. 성 아부네 아레가위 수도자에 의해 6세기에 지어졌으며, 곡선형 나무 패널과 천장 벽화가 잘 알려져 있다. 수도원은 남성만 출입할 수 있으며, 아직도 가족 로프를 이용해 15m 높이의 험준한 절벽을 타고 올라가야 한다. 1948년 대대적인 복원으로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루가 제 14 주일  
나훔 예언자  
성 필라레토스 수도자  
성 아나니아 순교자  
(제6조 • 조과복음 1)

##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

- 제6조 부활 찬양송 ..... 82
- 예언자 찬양송 ..... 84
- 성당 찬양송
- 성탄절 전 시기송 ..... 205
- 사도경 : 에페소 2,4~10 .....(봉)310
- 복음경 : 루가 18,35~43 ..... 132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따르게 될 것이다.”(마르코 16,17)

제자들뿐만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일게 될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기적들이 어떤 것일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십니다. 신자들은 그분의 이름으로 악마들을 쫓아낼 것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언어들로 말하게 될 것입니다. 또 병든 자들을 고쳐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권능 안에서 인생을, 세상을 헤쳐 나가고 있나요? 그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 권능들은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복음이 믿음이라는 단어에 부여하는 의미 그대로 나는 믿고 있을까요?

"제 믿음이 부족하다면 도와주십시오."(마르코 9,24)

'예수'[정교회출판사] 중에서

# 성사 생활

다니엘 나창규 대신부



성사란 주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제정하신 예식이며 이를 통해 주님의 은총을 사람들에게 선물로 부여해 주시는 것이다. 누구나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주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은총이 주어지지 않는다.

오늘 우리는 마지막 시대의 영성생활을 매일 악과 싸우면서 투쟁하고 있다. 우리 스스로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라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고 믿고 주님을 따라 영성생활을 하고 있다. 주님과 함께 생활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주님의 은총을 받아야 한다. 주님의 은총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님의 은총을 받아 영성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성사에 참여하는 삶이 필연적인 일이다. 오로지 성사를 통해서 주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주님의 은총은 회개와 참회로써 세례성사와 견진성사를 받은 사람에게 선물로 부여된다.

주님의 은총으로 우리는 고백성사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 받고 주님과 함께 평화롭게 생활할 수가 있다.

남녀가 결혼성사를 통해 한 몸이 되면 주님과 함께 삼위일체의 삶을 영위할 수가 있다. 주님의 은총이 부여되지 않은 가정에서는 성 삼위 하느님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 주님께서 두세 사람이 즉, 두 부부와 자녀가 내 이름으로 모여있는 곳에는 나도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다. 이처럼 주님의 은총을 결혼성사를 통해서 받았기 때문이다.

특히 성체성혈 성사는 세례성사와 견진성사 그리고 고백성사를 받은 교인이 받을 수 있는 성사로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한다. 이는 모든 성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성사로서 지금 이 시간에도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해준다. 주님께서 “나의 몸과 피를 받아 먹지 않으면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러나 나의 몸과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가 그 안에 있고 그가 내 안에 있어 함께 생활하게 된다.”고 직접 말씀하셨다.

주님을 믿고 성서를 열심히 매일 배운다 하더라도 영성체성혈이 이루어지지 않는 생활은 죽은 신앙이다. 주일날 이루어지는 성찬예배에서 우리 모두는 성체성혈을 받아 모셔야 한다. 주님의 몸은 영원한 생명을 베푸시기 때문이다.

# 은둔 수도자

요아니스 이스트라티 신부 / 아타나시아 봉사자 엮음



**한** 은둔 수도자가 아토스 성산의 큰 수도원 곁에 있는 작고 오래된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그는 수도원으로 내려가 고백성사를 하고, 성체성혈을 받았습니다.

수도생활을 시작한 뒤로 20년 동안 그는 유령을 보거나 악마에게 방해를 받는 일은 없었습니다. 어슴푸레 밝아오는 새벽의 빛을 보기까지 밤을 새워가며 조용히 기도하였고, 그 뒤 잠에 들곤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아주 피곤함을 느꼈고, 그래서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내 그는 잠이 들었고, 커다란 악마가 자신의 집 문 앞에 서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악마는 수도자를 기분 나쁜 표정으로 바라보면서 말했습니다. “너는 쓸모없이 기도하고 있다. 봐라! 나는 너를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 나는 지금도 너를 위해 멋진 미래를 열어보일 수 있다. 세상으로 나가서 너의 꿈을 실현하라!”

수도자는 눈을 지그시 감고는 말했습니다. “나의 소명은 세상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이다.”

악마가 말했습니다. “나도 기도를 좋아한다. 봐라! 나에게는 네가 원하는 것 무엇이든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나는 너를 돈과 영광으로 가득 채워줄 수 있다.”

수도자가 말했습니다.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 위대한 하느님께 기도한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악마가 대꾸했습니다. “그렇지. 하지만 하느님은 너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 너는 이곳에서 20년 동안이나 바보처럼 앉아 기도하였지만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다. 너는 수도원장도 사제도 아니고, 돈도 없고, 세상에서 존경도 받지 못한다. 이게 삶이란 말인가?”

수도자가 말했습니다. “나는 십자가 성호로 너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다. 나는 하느님의 종이다. 나에게는 도와달라고 늘상 기도하는 성인들이 있다. 그리고 나는 세상 속에서 아주 위대한 보물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내 마음 안에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의 성체를 모시고 있는 것이다. 나에게는 너에 대한 권한이 있다. 이제 명령하노니 지극히 거룩하신 성모님 은총의 힘으로 사라져버리거라!”

이 말을 듣자마자 악마는 온데간데없이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리고나서 수도자는 온 세상을 위해 기도하면서, 자신이 살아온 놀라운 삶에 대해 하느님과 성모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 서울 대성당과 암브로시오스 대주교님의 축일을 축하드립니다

12월 6일(금)에 축일을 맞는 성 니콜라스 대성당 여러분과 7일(토)에 축일을 맞이하시는 암브로시오스 대주교님께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총으로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 주간 예배 안내

- \* 12월 2일(월)  
성 보르피리오스 수도사제
- \* 12월 6일(금)  
성 니콜라스 미라 대주교
- \* 12월 7일(토)  
성 암브로시오스 밀라노 주교  
오전 9시 : 조과 및 성찬예배  
(지역 성당 예배는 해당 성당에 문의)

- 2025년도 축일 달력 발간  
주제는 '이콘'이며, 탁상용은 7천원, 벽걸이용은 1만 5천원입니다.



### 소중한 가르침

교부 한 분이 말씀하셨다.  
"교만한 자는 열매 없는 나무이며 뿌리 없는 나무와 같다. 그런 나무는 약한 바람이 불어와도 금방 쓰러지고 만다. 겸손한 사람의 기도가 하느님을 기쁘게 하는 만큼 교만한 자의 간구는 그만큼 하느님을 분노케 한다."

### 알림

- 서울 성당 '성 니콜라스 미라의 대주교' 축일 일정  
오늘부터 니콜라스 성인의 성화와 성해를 성당 중앙에 모시면서 축일이 시작됩니다.
  - 1일(일)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선물 증정  
오찬 후, 성당 대청소 및 성탄 장식 (모두 참여)
  - 5일(목) 오후 6시 15분부터: 대만과, 아르토클라시아, 행렬, 만찬
  - 6일(금) 오전 9시부터: 축일조과, 성찬예배, 오찬
- 한국 기독교 교회협의회(NCCK) 신임회장 기자회견  
지난 22일(목) 대교구청 홀에서, NCCK 신임회장으로 선임된 암브로시오스 대주교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다수의 언론이 참여한 가운데, 대주교는 '섬김의 정신', '그리스도인 일치', '기후 위기 대처'를 강조하였습니다.
- 영원히 기억하시리이다  
서울 성당의 베드로바 오유미 전 총무위원장께서 지난 21일 지병으로 안식하셨습니다. 고인은 오랫동안 재정 지원을 통해 교회 현안 해결에 도움을 주셨고, 선교 활동에 필요한 차량 구입, 외국 방문객의 자택 식사 초대 등 협조자로서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고인에게는 평온한 안식을, 가족들에게는 깊은 위로를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 서울 성당 유아 세례성사  
지난 23일(토), 성 막심 성당에서 백 유스티나 여아가 로만 대신부의 집전으로 세례를 받고 정교인이 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 우크라이나 희생자 추모 및 평화를 위한 기도식  
지난 23일(토),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에서 우크라이나 홀로도모르(1932-33년) 희생자,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희생자, 전쟁 종결을 위한 기도식이 있었습니다.